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전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동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영광의 회복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든 종류의 기쁨이 가득했던 에덴동산을 생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죄를 지어 그 복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도 죄없이 순결한 영광,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행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기쁨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상속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서 후사로 또한 후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참 모습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드러날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후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사가 되는 것 역시 모든 인간에게 자득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곧 후사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혈육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난 자들만이 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롬 9:7-8). 따라서 혈육으로 낳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영적으로 난 이스라엘이라야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사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후사는 인간의 공로(4:30)로, 율법의 준수(로 4:9)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후사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게서 세례를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대속자요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후사의 기초입니다.

모든 후사가 동등

하나님의 후사가 된 모든 가족들은 다 동등합니다. 한 살 찌러 아끼기긴, 다 성장한 어른이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후사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는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후사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약속 아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히 6: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만물을, 곧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거나한 부자진, 크진 작진, 약하진 강하진 거기에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후사들은 동등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후사

우리의 기업은 신적 기원을 가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특별한 우리의 특권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만물의 후사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고전 3:21).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후사요(민 3:7). 그 나라의 후사요(약 2:5). 약속의 후사요(히 6:17). 의의 후사(히 11:17)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의 은총을 얻을 후사입니다(벧전 3:7).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후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사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모든 선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상속 받으신 모든 것을 상속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성도들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축복, 그 영원한 기업은 안전합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벧전 1:4). 만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후사됨의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고통이아마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기업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위대한 기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업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확실히 보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만물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연합시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충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그것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그 기업의 온전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함께한 후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단단히 묶어 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의 함께하심을 인해 더욱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영광을 위한 고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분깃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시키십니다. 기업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업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고통도 우리가 얻을 기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현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청하신 때에 임할 영광, 곧 다가를 그 기쁨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가족되고 친구되신 사랑하는 성도의 설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이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 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읍시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십시오. 아멘

Sermon of pastor Kim



Heirs of God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in order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Romans 8:17)

This chapter reminds us of the Garden of Eden which had in it all manners of delight. But Adam and Eve sinned and we lost it all; we lost the pure glory of knowing and loving God without sin. Today's particular verse highlights the tremendous blessings of our progressive Christian journey upwards toward God.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v. 17). As children of God, eternal life with Him is our promised inheritance. This wonderful verse shows us the higher and higher nature of our divine heirship. We go from sonship to heirship and heirship to joint heirship with the Lord Jesus. It's a step-up-step-up display of the real meaning of our true identity.

The ground of heirship begins as children of God. It doesn't follow the natural or ordinary mean of human creation. Heirship doesn't automatically come to every human being. The Bible doesn't say, "if creature then heir also"; it says "if children, then heir of God". This is a big difference that people need to grasp because heirship is also not found through natural descendants. Neither are they all children because they are Abraham's descendants, but: "through Isaac your descendants will be named." That is, it is not the children of the flesh who are children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are regarded as descendants(Rom. 9:7-8). Not all Israelites (physically) are Israel (spiritually). This is proof of God's sovereign election: God chose Isaac, not Ishmael, and Jacob, not Esau. Nor can heirship come through meritorious service (see Gal. 4:30) or ceremonial observance (see Rom 4:9). Heirship is given to God's chosen only.

Who really are heirs of God? The Bible specifically mentions,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Rom. 8:14),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Gal. 4:6),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o is being renewed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Col. 3:10), and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Jn. 1:12). Amen!!! Heirs of God are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Redeemer, and Lord. These are the one's who can be his children, not natural creatures but those who have received new life — and that's the ground of heirship.

Heirs are equal in the divine family. There's a certain universal character to divine heirship. Time within the Kingdom doesn't change heirship. Whether you're a baby Christian of one year or a mature Christian of many years, heirship is the same. God blesses His children under the same promise (see Heb. 6:17). Also, whoever becomes a child of God is directly related to His firstborn Son, who is the first among many brethren. The inheritance is large enough

for all. It doesn't make a difference whether you're poor or rich, big or little, weak or strong, all heirs, except Jesus, are the same.

Our inheritance is divinely great! Not many people understand the awesomeness of being a heir of God. The Bible tells us so much of our wonderful and different privileges. As children of God, we are heirs of all things.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ll things newly created),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Rev. 21:7). "So then let no one boast in men. For all things belong to you"(1 Cor. 3:21). Children of God are heirs of salvation (see Titus 3:7), heirs of the kingdom (Jam. 2:5), heirs of promise (see Heb. 6:17), heirs of righteousness (see Heb. 11:17), and heirs of the grace of life (see 1 Pet. 3:7). Amazing! Christian heirs possess all that God possesses and all that God is. Amen! We receive all of His love, for God is love. Hence, heirs acquire all possible good for God is good. We are heirs of all Jesus has and is as God and man. We are heirs of God Himself—what an infinite portion!

Believers are joint-heirs with Christ who has already been glorified. The eternal inheritance of future blessings promised by God is secure because it is "kept in heaven" (see 1 Peter 1:4). Joint heirship with Christ is the test of true heirship. We are not heirs except with Christ, in Christ, and through Christ. This sweetens everything because fellowship with Jesus is the best portion. You can't have anything without Jesus. This shows us the greatness of our inheritance and the worth of Jesus Christ. Such an inheritance as the Father gave to His well beloved Son, He gives to us. This insures it to us for Jesus will not lose it. His title deed and ours is one and indivisible.

Jesus should become partners with us in all things, for His love is unbounded. He takes us into union with Himself, and He secures our inheritance. His prayer for us obtains it, His going into heaven prepares it, and His coming again will bring full enjoyment of it. This joint heirship joins us fast to Jesus. Since we are nothing and have nothing and can do nothing apart from Him, we should all the more appreciate His being.

Christians are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God both prepares us for glory and prepares glory for us. It is ours by inheritance. At the same time, however, we have our part to play; glorification should be sought and it will be wrought in us through our affliction and suffering. Let us joyfully accept the present suffering with Jesus Christ, for it is part of our heritage. Let's believe in the glorification which is sure to follow in due time and let us anticipate with immediate rejoicing.

My dear and beloved Choong Hyun friends, this is our blessing on earth and in heaven. This time is our future and it is forever and ever. Let's deny ourselves, take-up our cross and follow Him with faith. Let's join heirship with Jesus. We can only get it with Jesus, through Jesus, and in Jesus.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이 세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에 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사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27)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25-34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2).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잠 15:13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17:22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몸이 아프고, 짜증나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며 막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주인으로 삼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의 뜻이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 합니다. 다 누가복음 12:13-21에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눅 12:13)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눅 12:15)라고 말씀하시며 이리저리는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까. “도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도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리저리는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

이 뭣 것이 되었느냐 하겠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19-21).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제가 돈을 벌어야만 자녀들을 공부시켜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도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난 날 성경에서 회사를 그만 둘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님과 세 딸이 있어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다” 하는 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음이 평강을 주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 첫 시냇가의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현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며,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히바국 3:17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바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삼 3:18).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합니다. 괴로운 날이나 슬픔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 정말 기쁩니다.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시며,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기쁨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날 사랑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고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저도 남다른 저를 저서 복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목주 전도사)

복음만이 진리이다

지금까지 오지 선교나 거지 선교로 갔던 곳들이 다 더웠던 터라 이제 더 이상 더운 지방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인도 단기선교에 대한 제의가 왔을 때 계속 고려했다. 인도는 더운데다가 나는 인도 언어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언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선교가 내 원한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 왜 선교지 선정을 내 기준에 맞추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떨렸지만 인도에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갔다 와 보니 인도로 가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더위도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괴롭지 않았고, 언어를 많이 모르는 것도, 오히려 복음을 관련된 말만 하니 은혜가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인도어로 알고 갔으니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예수님밖에 드러낼 수 없었다. 더욱이 인도는 복음의 황금어장이었다.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었다.

인도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신기해 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명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길잡이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다. 사실 세 명 정도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는데, 그 이상 오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진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남미에서 오래 살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많이 봤고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해 왔었기 때문에 단기선교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나의 생각을 깨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끊임없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어떤 운전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한두교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도 했다. 한 번은 한두교 사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와 “뭘 하는 거냐. 어디서 온 거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항의에 많이 당황했지만 어차피 할 줄 아는 인도어로 복음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고, 성경에서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당신들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리 왔다”고 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으며 그 중의 한 명은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기 선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 사건이 있었다. 나는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유난히 어지러웠다. 그 날도 말라리아 약을 먹고 어지러움에 시달렸지만 아픈 티를 못 내고 대원들과 거리 전도를 하던 중이었다. 어느새 다른 대원들은 저만치 앞에 가고 있었다. 나는 티백티백 힘없이 뒤 따르고 있는데, 한두교 복장을 한 어떤 노인이 머리에 핀가를 인하여 양안에 짐을 들고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나는 ‘저 노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어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 노인과 가까워서 마주치면서 ‘아니야 그래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거의 의무적으로 힘없이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노인도 인사를 했고 나는 습관적인 말투로 ‘예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듣지 못했다고 해서 또 “그럼, 들어보실래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듣는다는 의미로 양안의 핀과 머리에 인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배운 대로 하나님께 천진을 가져온 신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의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평평 읊었다. 나도 갑자기 감동이 차올라 함께 부둥켜안고 읊었다. 그 노인은 그러던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물었다. 부둥켜안고 읊던 나는 잠깐 노인을 때려놓고 영접기도를 알려 주었다. 그가 영접기도를 하는 동안 나도 함께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노인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소서.

주의 은혜로 이런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더불어 팀원들과도 호흡이 잘 맞았다. 이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특히, 전도할 때 내 말이 되어 주셨던 장로님께 감사한다.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나를 계속 지켜 주시고 도와 주셨다. 이제 후 주님께서 다시 단기선교를 가라고 하신다니 나는 바로 또 떠날 것이다. 진실로 복음만이 진리이다.

6교구 1지역 인도 단기 선교팀
김순영 집사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에바다부	조종환	카자흐스탄	6월 10일(화)~6월 20일(금)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7교구 11지역	한만교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4교구 6지역	문효식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5교구 7지역	전종일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7교구 2지역	표왕렬	불가리아	5월 26일(월)~6월 5일(목)
13교구 6지역	강진택	불가리아	5월 26일(월)~6월 5일(목)

▶ 젊은, 우리의 복음의 사도 9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나에게는 11일의 사역기간 중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아침이었다. 세수를 하기 위해 세면대에 서려는데, 똑바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무릎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워 활자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이 사역 시작하는 첫 날인데, 내가 다른 팀원들에게 짐이 되면 어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참을 화장실에 꿰어 앉아서 주님만 불렀다. 결국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놓고 그 위에서 겨우 세수할 수 있었다.

그 날은 이집트에 있는 수단인 난민촌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그들에게는 집도 없었고, 패허같은 모래벌판과 기둥 몇 개가 소유의 전부였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보이는 냉랭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 중 한사람이 목숨을 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허허벌판에서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눈물로 기도했다. 동일한 성령님이 이 곳 영혼들과 우리들에게 임재하신 것이다. 그 때처럼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했던 시간은 없었다. 주님은 역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신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때 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알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했다.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주셨다.

이제 선교를 다녀온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이집트에서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서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참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박은연 (대학부)

방글 방글 방글라

조 중 민 (침사, 7교구)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땅이기에
방글 방글 웃어대는 방글라!

우리네는 금그릇, 은그릇 있다고 뽐내지만
그네들은 질그릇 만 있어도 추한다.

복음을 질그릇에 등불 닮아 드렸더니
이내 방글 웃어대는 눈기에
눈시울이 멎혀 흐르는구나!

또 어떤 이에게는 질그릇에
주의 사랑을 담아

고이 드렸더니 사는 평면 한탄하며
손을 휘어 저으며 쓴웃음 짓는구나!
헤어지자고 내미는 손, 눈기가 실어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은 했지만
그 말이 못 믿으며
뒤돌아 보자니 눈물이 땀 도는구나!

그러나 그곳이 지상의 천국임을 확신하며
주님의 숭소리가 일기에 왔던 길 돌아가며,
"코다 방글라 발로버센"
(주님은 방글라를 사랑한다고)
외치며 비행기에 내 몸을 싣는다.

(방글라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뜻의 걸음을 옮기심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본향 스리랑카 땅에 선교의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한 자매가 있다.

그녀는 처음에 자유가 있는 한국 땅이 마냥 좋았다. 한국에 있으면 수입도 스리랑카보다 좋고, 자신의 위치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커져갈수록 스리랑카의 먼지 없는 동포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준비하신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와 함께 자신이 떠났던 스리랑카에 선교의 비전을 갖고 돌아갈 준비를 한다.

오늘 그녀의 신혼집을 심방하였다. 그녀는 선교갈 것을 생각하고 종교가구들로부터 신혼집을 꾸며 놓았다. 그리고 약세사리 사업을 계획해 비즈니스 비자로 한국에 당당히 머물고 싶어 했던 그녀는 그 야망을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태권도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진실로 나를 주 안에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곳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녀의 옮겨진 발걸음이 뜻의 옮겨진 발걸음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추진희 (선교위원회 간사)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9

나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으며 성도는 삶의 초점을 선교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고 다니오면서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전도지에 있는 대로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안타까웠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팀원 중 어떤 집사님이 아니라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 관리가 "당신이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교회를 가라, 마라 하고 명령하느냐"며 "앞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면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쉬운 것은 갈 때마다 정보를 새로 알아보아야 하고 언어도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도가 늦어진다라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담당해서 그 나라로 선교 가는 팀들에게 꾸준히 언어계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를 가르친다면 더 빨리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내 계획은 교회의 정책을 따라 단기 선교에 계속 힘을 쓰고 한국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6교구 1지역장
이일호

(염정섭 기자)

교회 오게 된 이유

김수연 (대학부)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어머니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재단이었던 학교의 신앙수련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나를 충현교회까지 이끌어 준 롬메이트를 만났다. 그곳에서 같은 조의 조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에는 자주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롬메이트였던 친구를 통해 충현교회를 찾아왔다. 아주 이질적 동네 친구들과 물러가던 교회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재확인하는 내 마음이 이끄러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 교회에 문을 열고 예배실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메우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를 더 긴장하게 했다. 나는 성경이라고 해야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밖에 몰랐다. 목사님이 크고 격조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다가 내 소감을 어색하게 마치고 나서 새 가족들이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 첫 날, 다행히 그곳에서 나처럼 처음 교회에 온 언니도 만났고, 조장님이 친절해서 굳이 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각자 소개 할 때, 처음은 회회가 어색하다는 한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들을 같이 터놓고 말할 수 있었다.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분, 구원자, 천국,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긴 한 것 같은데 뭐다 명료하게 정의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조금씩 하나님에 알아가면서 믿지 못할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나를 처음 교회에 데려갔던 그 친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 같은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래도 쉽게 적응하고 교회에 전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난 주에 등반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 처음 회회를 다니면서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졸림까지 한 게 많이 부끄러웠다는 생각도 한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 내 맘 속에도 작은 믿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예감으로, 내가 기도를 해도 그분만은 듣고 개실 거라는 소박한 기대로, 한 발씩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바랄 뿐이다.

장학생 인터뷰 7

천국일꾼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천국일꾼으로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많이 부족해요. 찬양을 함에 있어서 저의 영적인 부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찬양이 진실로 저의 고백이 되는가 하는 중심적인 면들이 많이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면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찬양을 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은 저에게 참 감사한 시간들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실천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특히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해요. 천국일꾼으로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구별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행동적인 면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희생적이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보여야 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저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그 가지의 열매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다시 영생을 얻었지요. 영원한 생명을요. 그분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는 그분과 늘 기도로 대화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삶을살라고 노력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었음에도 아직 그분을 향한 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은 한없이 부족하지만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라"(시 23:1). 이 말씀은 예전에 도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야 제게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겐 필요가 없으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 많고 그 욕심들로 우리를 채우고 싶어해요. 그러나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영의 갈급함을 우리는 결국에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천국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욕심이 더 사라지게 됨을 느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감사함을 감사한 마음만으로 끝내지 않고 제 맘 속에서 실천하는 고백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김보남(대학부)

소망

어느덧 제가 교회에 온 지 4개월이 지났네요.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지요.

4월 첫 주를 거울, 열어붙은 마음을 안고 대학부 문을 두드렸고,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려는 어린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가족부라는 동지를 대학부에 허락하셨답니다. 낯설어하는 영혼을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새가족 조장을 덕분에 일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동지를 벗어나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조금씩 대학부로, 교회로 이끌어 주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전 이렇게 날게 있을 허마 날아가고 있었구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인젠가 미련이가 저에게 별일 찬양대에 대한 말을 부스스고 던졌는데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어느새 한 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집회나 기도회 역시 가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바다 형이 별다른 말없이 "갈래?"하는 말에 '한 번 가볼까?'하고 갔던 집회나 기도회를 이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소망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성경공부, 벨레, 벨레, 금요집회, 기도회, 선교 등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세상의 말은 당장은 달콤해도 결국은 내 가슴을 멎게 하지만, 하늘의 말은 당장은 귀에 거슬릴지 몰라도 먼 훗날 언젠가 그 말을 떠올리면 감사하게 되는 사랑의 말인 것 같아요.

또 제게 처음 권면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 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해 하면서 저도 주님의 통로로써 사용되어지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또한 제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된 이유는,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저를 회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한 발을 들여놓고 나니 그곳에 가던 지쳤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그곳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받기만 하니 주님께 피곤하지만 아직은 제가 자라나는 과정이기에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의 감사가 주님께 온전히 드러지길 소망하고, 기도회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하고, 찬양대에서 주님께 찬양 드리길 소망하고, 교외 밖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풍요리하도록 알리길 소망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주님께 데리고 올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제 생강 같아선 도저히 불가늑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도로써 나아가며 그 아이에게 조금씩 다가갈 생각이에요.



이정수(대학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를 즐겨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서 내려 오네...이 땅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다 예수 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자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심정적 이 찬송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 볼 수 있기에 감사하며 이 찬송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몇 대 제 신앙생활을 해오던 가정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 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가는 줄로 알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예수님에 대해 회의가 생겨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선교단체 통해 주님을 만나 구원을 확신했고,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커다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전경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취직할 적이 있었는데, 음악 교사를 하려면 찬양대 반주 를 그만 두어야 했기 때문에 고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학교 측에 못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9-10). 저는 여러가지로 약한 구석이 많은 부추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합니다.

4. 기도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제 자신의 독주(獨奏)가 아닌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을 돕 는 반주,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도록 기도 합니다. 예배 반주를 위해 요즘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 영감 있는 찬양대 반주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혜연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

(임혜원 기자)

마틴 루터의 찬송가



8. 참된 화평의 길, 십자가!

내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밖에서 들어 오는 죄의 유혹보다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세력, 교만, 그리고 거짓이 더 무거운 짐이다. 그것으로 인해 이웃 과의 관계가 뒤떨어지고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고통스 럽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어느새 별 것 아닌 일로 이웃을 알보거나 미워하는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 이웃을 은근히 질투하는 추악한 모습 도 발견하게 된다. 기도할 때는 "주여, 저는 별래 같은 자입니다"라고 말해 놓고서 정과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짓된 모습 도 발견한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웃과의 화평은 고사하고 내 안에서조차 참된 평안 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랑의 몸에 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이런 내 모습을 더욱 죄나라하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더 귀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그런 악함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는 계 명도 내 그런 악함을 질책하며 교정해 주었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 여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늘 십자가로부터 왔다. 먼저, 십자가는 내가 어 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시지 않았다면 달리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방법이 전 혀 없는 비참하고 곤고한 존재였던 것이다.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십자가는 그토록 비참하고 곤고한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각성(覺醒)은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내 안에 불러 일으켰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시(注視)하자 이처럼 복 된 결과들이 내 마음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능력도 함께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아(自我)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 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이다. 아! 옛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바라보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야 알 것 같다.

(이태복 목사)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중수 성도를 소개합니다



충현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저는 무교였고, 어머니는 불 교였습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누나와 아들이 가족들을 계속 전도하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 도 종교를 가지려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충현 교회의 한 집사님이 무려 한 달이나 끈질기게 전도하여 교회에 다닌 결심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제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충현 교회에 다니고 해서 충현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무교일 때는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분석하려고 해서 불신했 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의심이 없어집니다. 성경의 모 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구세 주이시며, 친구이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새·가·족·을·원·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75	왕성민	1	창년부 김은재(1)	685	조재현	9	예배다부 박정현(19)	695	안성진	19	대학부 강준호(8)
676	박현해	1	창년부 권한순(15)	686	김준우	10	창년부 이정학(13)	696	손희희	19	창년부
677	손태숙	2	창년부 하수진(2)	687	이정수	11	창년부	697	김순성	19	예배다부 조종환(12)
678	조재학	4	창년부 이은혜(6)	688	강희재	11	창년부	698	강성지	19	대학부 정혜리(14)
679	김지원	4	대학부 김기현(1)	690	김정현	19	창년부 강주연(16)	699	변진아	19	창년부 김진표(1)
680	김종현	4	대학부 김기현(1)	691	이희희	19	창년부 박은영(6)	700	정경화	19	대학부 김중세(19)
681	조성래	8	창년부 조석구(6)	691	홍준기	19	창년부 구재현(2)	701	이유진	12	창년부
682	이효주	8	예배다부 박규진(7)	692	허성만	19	창년부 전은수(13)	702	이유미	12	창년부
683	최효호	9	창년부 조규현(1)	693	심은희	19	고등부				
684	조숙아	9	예배다부 허진영(1)	694	차정민	16	신온가복부 한동훈(16)				

※ 충현교회의 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찬송

이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2200여편의 찬송곡을 작곡한 윌리엄 하워드 돈(William Howard Doane, 1832-1915)이 작곡하여 1871년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와 공동편찬한 찬송가집 '순금(Pure Gold)'에 처음 실었다. 작사자는 미국 침례교회 여류 찬송 작가 리디아 백스터(Lydia Baxter, 1809-1874) 여 사이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1870년에 작곡자가 요청해서 이 찬송사를 작시했다고 한다.

이 찬송은 4번의 4박자 곡이고, 특히 후렴 부분은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예수님 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찬양하자.

1절: 슬픔과 근심의 자녀여, 예수의 이름을 지니라. 기쁨과 위로를 내게 주리라.
이름을 가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2절: 예수의 이름을 지니라, 나의 방패로다. 시험과 환란이 너를 돌려 쓰나면,
기도로 주의 가락한 이름을 호소하라.

3절: 귀한 예수의 이름, 참으로 우리 영혼 기쁨으로 만족케 되네. 주가 사랑스런 팔로
인양할 때 우리의 실수이 그의 찬송을 부르는 도구가 되리라.

4절: 우리 순례의 길이 마쳐질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빛 안에 이르도이여
예수의 이름에 경배하고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리리라

후렴: 귀한 이름 얼마나 사랑스런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이로다

(찬양위원회)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 4행시 (중등3부)

13만 박애은

초: 초록빛이 무성하던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를 드러내고

청: 청아한 소리로 아침을 깨우던 새소리도 뜸해질 쯤,

전: 전도한 내 친구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

도: 도리어 나보다 믿음이 깊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가슴 가득 기쁜
마음이 차오른다.

23만 신소라

초: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청: 청명하고 맑은 하나님의 나라로

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맑은 곳에

도: 도착할 그 날까지...(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2만 천하라

초: 초록빛깔의 나무가 되는 것도

청: 청포도 같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도

전: 전부 다~ 주님 덕분이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 모두 알리는데

도: 도전해 봐요~ 함께 하자고요!

41만 강운정

초: 초롱초롱 이슬맺힌 주일 아침, 저희 교회로 초

청: 청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도: 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오세요~ 총원교회로

32만 우지혜

초: 초대장이 있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청: 청하기여 당신을 초대합니다. "친구도 데리고 오세요"

전: 전도 잔치입니다. "친구들 많이 데려 오세요"

도: 도구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세요"

12만 이은혜

초: 초청할 겁니다.

청: 청명하게 살지 않았던 내 친구를

전: 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내 친구를 이제 전도합니다.

도: 도심속에서 헤메이는 어린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중등1부 초청잔치

장 지 혜 (중등1부 기자단)

진리의 샘

빌립보서(Philipp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에 들어가는 첫 성역이었으며,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행 16:12).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가진 만민이나 교회의 형성 역시 예사롭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던 중 '도로아'에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행 16:9),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성은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seller of purple fabrics)하던 여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집 모든 식구들이 세례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행 16:14~15). 그러다 그곳에서 접을 치던 귀신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바울에 여자의 주인에게 고발당하게 되었고, 결국 심한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행 16:23).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가 깨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마침내 그 간수와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사해를 받게 되었습니다(행 16:34). 마침내 '빌립보'에는 이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獄中)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고, 그의 편지는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감옥이라는 아들과 단절된 환경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가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친 수모와 어려움을 받았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생기는 진정한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지)



6월1일에 새 친구 초청집회가 열렸다.

한 주 전부터 친구들을 초청하며 마음 먹고 나의 친구 민희, 미란, 아연, 해림을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너 우리 총원교회 가지 않을래?' 하면서 꼬셔보았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생각 좀 해볼게. 그런데 나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데'라고 말하기도, 또는 '부모님께 물어볼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러 친구들에게도 초청해 보았다. 그 중 몇몇 친구들은 가려고 했었다.

토요일 밤에 나는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해 보았다.

"파르르릉"

그런데 한결 같이 약속이나 한 듯 다 못 온다고 했다. 마지막 친구가 못 온다고 했을 때, 속에서 뭔가 우리 나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전화기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지막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달려가 "오양~" 하고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4살 된 내 동생은 내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듣고 같이 따라 울었다. 엄마 아빠가 야단치시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다.

다음 날 주일 아침에 목이 터질듯이 따가웠고, 눈도 부어 있었다. 아빠 차 타고 교회 오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속상했다.

차안에서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처음에는 전도가 쉬운 건 줄 알았는데, 힘들다. 다음 번에는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친구들이 나랑 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해야겠다.

교 회 소 식

알 림

1.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2003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에 22일이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 임

1. 제2, 3차 월례회
일시: 11월(수)上午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2. 경찰 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본당 112호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범부서 동산 신학교(인(숙식재)) 운전직 미화직 경비직
2. 지역 세례교인
3. 제물 서류 자비 이매서 주린등록본 담당회 추천서(티교인)
4. 서류 제물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교회

◆ 2003년 외선부으로 선교의 날

1. 일 시: 2003년 6월 22일 (주일) 10:30-16:30 2. 장 소: 아멘홀
3. 감전과목: 흥부·X-선 촬영, 피부질환, 외과, 혈액검사, 전염성질환
4. 취 지: 국내 외국인선교부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MTC 집중 훈련 안내

1. 일 시: 2003년도 6월 21일(토요일) 14:00-18:00 / 2003년도 6월 28일(토요일) 14:00-18:00
2. 반 편 성: 1강-4강까지 강의하는 A반과 5강-8강까지 강의하는 B반으로 편성 했음.
3. 장 소: 김길리움 (A반), 제2교육관 2층 (B반)
4. 대 상: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있는 성도
5. 회 비: 학생 5,000원, 일반 10,000원

2003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김교성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건양 목사)	교육관 304호		
6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상욱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방준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육관 309호	문 답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교육관 301호
6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주일)
설교자/기도자	나광영/노영한	정진호/안성영	고광환/이지은	김창훈/김연근	김익환/박태진	김정주/이옥주
						하종철/김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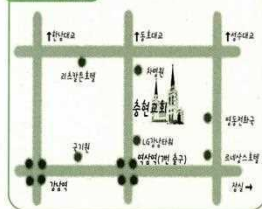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6/11-6/15)

날짜	예 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6/11	수요 I		이성기	장진태
6/11	수요 II		하종철	김정희
6/13	금요일회	특별찬양 (선교 헌상송영찬/유, 초, 소 교사 연합찬양대)	정원민	온혜의 보좌 알리오(히 4:14-16) 장 훈 목사
6/15	주일 I		임현덕	최윤덕
6/15	주일 II	내 본향 가는 길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렘부터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성숙	하나님의 후사(롬 8:17) 이종대 목사
6/15	주일 III	하나님의 나팔소리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렘부터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성숙	하나님의 후사(롬 8:17) 이종대 목사
6/15	주일 IV	만유의 주께 외/테너 최윤희, 소프라노 이하나(별명 로망트 솔리스트)	위건양	모든 것의 합력하여(롬 8:26-30) 나광영 목사
6/15	주일 V	내 주님 입신조 그 웃은 외/장모트 이은혜(별명 엑스페르타)	안정환	하나님의 후사(롬 8:12-17) 고광환 목사
6/15	주일찬양		정진호	방인구 (사 27) 여근구 목사

충현기도의 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성에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신도로서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시게 하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단신자 진도와 교회 주변 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동생동생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열린기도하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교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교회집회	오후 11:00	본당집회 후 본당출발

■ 사무장로

- 김의철 김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최대원 엄필섭 강모호 이 훈 남선우
- 정운석 김영림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 김진재 이상호 차신득 김경남 이종식
-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강재
- 진홍용 전홍윤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원운철 이형수
- 안동현 황인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 박덕만 이대식 정대두 박광운 권명호
- 조종환 배성식 김영단 이선호 박찬식
- 최희용 노영환 박철규 정경칠 신상수
- 강철형 고재승 김성원

■ 위임목사 김 성 관

- 부목사
- 이종대 정원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이국근
- 김교성 이윤진 안정환 방준영 나광영
- 정진호 김용덕 이상욱 고광환 김창훈
- 위건양 김석관 김성주 장 훈 임현덕
-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 장동진 양재호
- 전도목사 이경철
- 전도사
- 정원희 신동자 윤윤자 한영준 김연식
-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안태순 김정연
- 조옥자 강덕철 김경선 강재구 최문실
- 전은희 김영순 김갑자 이수경
- 찬양감독 강인규 ■ 전집지휘자 서문성
- 전집지휘자 김소연
- 단신교도 강기영
- 협력선교사 하효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어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한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서 북남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D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